



인도네시아에 1일 생산량 7,250배럴 규모 기유 공장 설립



SK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해외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 독주체제 구축에 나선다. 전 세계 고급윤활유(그룹3) 시장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SK 주식회사는 고급 윤활기유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자사의 세번째 윤활기유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다.

SK주식회사는 공장설립을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T Pertamina)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23일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SK주식회사 신현철 사장, 유정준 전무를 비롯해 아리 소마르노 페르타미나 사장 등 양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법인 설립조인식을 가졌다.

SK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해외 고급 윤활기유 시장에서 독주체제 구축에 나선다. 전 세계 고급윤활유(그룹3) 시장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SK 주식회사는 고급 윤활기유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자사의 세번째 윤활기유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한다.

SK주식회사는 공장설립을 위해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PT Pertamina)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

중국과 매연저감장치 기술 공동개발

SK주식회사는 지난 4월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환 경보호총국 산하연구소인 '자동차 공해방지 연구소(VECC: Vehicle Emission Control Center)'와 경유자동차용 매연 저감장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SK주식회사 박상훈 기술원장, 전태봉 환경부 대기보전국장, 김지태 주중대한민국 참사관을 비롯 중국 환경보호총국 쉬슈판(胥樹凡) 과기사부사장(科技司副司長), 탕다강(湯大綱) VECC 주임, 중국과학기술개발원 및 북경이 공대학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중국시장에 적합한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SK주식회사가 시제품을 개발하고 VECC는 베이징시의 운행경유차에 대한 테스트 및 성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SK주식회사는 이번에 평가를 받는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인증 획득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활유 수출 가속질주

환율하락으로 수출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SK주식회사의 윤활유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SK주식회사는 1, 2월 두 달간 수출금액이 7천 4백만달러 정도로 집계돼 작년 1분기 실적인 7천 5백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SK주식회사는 윤활유 수출 증가에 대해 주력 지역인 러시아 등지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으로 판매량이 늘어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SK주식회사는 ZIC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러시아 지역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두 달간 TV, 라디오 등 매체광고를 시작했다.

SK주식회사는 올해 윤활유 사업분야에서 매출액 7천억원 과 영업이익 1,2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브랜드 관리 강화, 해외진출 등을 통해 매출 1조원 돌파를 위한 기반을 닦는다는 계획이다.

SK의 울산사랑 10년 정성, 울산대공원 준공



SK주식회사는 지난 4월13일 오전 11시, 박맹우 시장, 김철욱 시의장 등 울산지역 주요 기관·단체장과 이규용 환경부 차관, SK주식회사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SK그룹사 임직원 및 일반시민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공원 SK공장 특설무대에서 울산대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울산대공원 사업은 지난 1995년 울산시와 SK주식회사가 울산대공원 조성 약정을 체결하고 1997년 첫삽을 뜬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울산시와 SK주식회사는 서로 긴밀한 협조 속에 지난 2002년 울산대공원 1차 시설을 성공적으로 개장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시설을 아우르는 준공식에 이르기까지 총 10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와 기업체가 협력·상생해 가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분기 매출 5조 2,777억, 영업이익 3,300억원

SK주식회사가 1분기에 매출 5조 2,777억원, 영업이익 3,300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예 비해 매출은 11%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4% 감소한 것이다. 작년에 창사 이래 최초로 10조원을 넘어섰던 수출의 경우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윤활유 3대 제품의 수출금액이 6.4% 증가한 2조원을 넘어섰다.

SK주식회사는 석유사업의 경우 두바이 원유 기준 단순정제 마진 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16센트 감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중동 원유보다 경제성이 좋은 서아프리카 원유 도입량을 2005년 평균 7% 수준에서 금년 1월에는 25% 수준까지 늘리는 한편, 경제성이 낮은 중동 원유 도입량을 줄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저가 원유 재고 일부를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영업 이익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객행복주식회사 힘찬 날개짓

SK주식회사는 지난 5월9일 오전 본사에서 신현철 사장, 김명곤 부사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행복경영 비전 및 슬로건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내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고객행복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과 함께 행동하는 고객행복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 되었으며 SK주식회사 신현철 사장 및 SK네트웍스 정만원 사장 등이 고객행복경영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장애우 행복 결혼식을 열어드립니다.”

SK주식회사가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우 커플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SK주식회사는 5월부터 매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못 올린 장애우 커플을 뽑아 결혼식을 열어주는 ‘SK와 함께 하는 장애우 행복 결혼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SK주식회사는 지난해 10월 조순 사외이사의 주례로 장애우 50쌍의 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어 올해 결혼식 지원 사회공헌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역시 하반기에는 장애우 단체결혼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창립 39주년 기념식 거행



GS칼텍스는 지난 5월 18일 GS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회사 창립 39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주주, 고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온 회사의 창립39주년을 축하했다.

허동수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회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해 온 임직원 및 고객, 주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

고, No.2 HOU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지속적인 사업다변화를 뒷받침하는 Operational Excell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리더로서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허동수 회장 중동 방문



허동수 회장은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오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3개국 순방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허동수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알함리 에너지장관,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의 유세프 총재, 오만의 막키 국가경제성 장관과 오만의 막불 상공부 장관 등을 만나 자원개발과 석유사업 관련 협력 관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허동수 회장, 지속가능발전위원으로 위촉



허동수 회장은 지난 5월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해 새로 선임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로서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술대회 및 어린이글쓰기대회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5월 14일 올림픽공원내 88놀이마당에서 8천 여 명의 어린이들 및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후원으로 '제13회 GS칼텍스 환경미술대회'를 개최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여 올해로 1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명역식 사장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 등 내외귀빈과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너스카드 제도 변경



지난 5월 10일부터 GS칼텍스 보너스카드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다. 이번에 변경된 보너스카드 제도는 기존에 1천원을 1포인트로 환산하고 포인트당 3~5원을 주던 적립시스템을 변경해 1천원당 5포인트를 적립하고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고객이 회사의 주유소·충전소

및 joyMart, autoOasis 중 어느 곳을 이용하더라도 동일 금액에 한해 동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알개닷컴에서는 중고차 매매시 최대 50,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도 있다.

prime경유 출시

GS칼텍스는 지난 5월 19일 레저용차량(RV)과 디젤승용차를 위한 맞춤 경유인 'prime경유'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prime경유는 일반 경유에 비해 세탄가가 10% 향상된 세탄가 58 이상인 제품으로 소음과 진동을 줄여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반면, 조연제를 첨가하여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키며 분진이나 그을음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청정제를 추가로 주입하여 엔진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도 줄이는 우수한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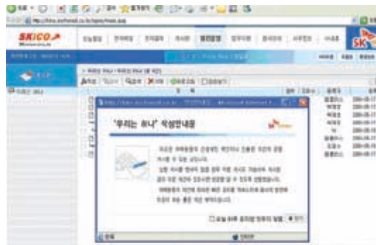
선진형 무인주차장 GS타임즈 1호점 오픈



'GS Park24'가 지난 5월 17일 분당 정자동에서 무인주차장 'GS타임즈' 1호점을 오픈했다. GS칼텍스가 일본 주차전문업체 Park24 등과 공동 투자해 설립한 GS Park24는 선진국형 무인주차시스템으로 GS타임즈를 운영하며, 주차이용객이 24시간 언제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열린 경영 Channel 운영



SK인천정유는 지난 5월 22일 기존 사내 전자게시판 기능에 CEO와 임직원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Open Communication 기능을 추가한 「열린경영」 On-Line Channel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하였다.

이는 첫째, 회사 구성원들의 건설적인 제안들이 경영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구성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회사생활을 유도하고, 둘째,

CEO의 경영 철학 및 전달사항을 가감없이 전 구성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내 역량을 하나로 결집·극대화하는 시스템 경영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

서울사무소 이전

SK인천정유는 SK가족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2006년 6월 12일부로 현재의 마포 삼정빌딩(舊 대농빌딩)에서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빌딩으로 이전하였다.

- 이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SK빌딩 11, 12층
- 대표 전화 : 02)2121-3600 / 대표 팩스 : 02)2121-3601
- 업무개시일 : 2006년 6월 12일

조순 이사 초청강연



SK인천정유는 지난 4월14일 인천공장(본사) 대강당에서 조순 SK주식회사 사외이사를 모시고 “적극적인 인생설계”를 주제로 특별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조순 이사는 이날 초청강연에서 SK인천정유의 미래는 임직원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신감과 열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가짐을 함양할 것을 임직원에게 주문하였다. 이날 초청강연에는 최상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06년 1/4분기 경영설명회 개최

SK인천정유는 지난 5월 11일 인천공장(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분기 경영실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SK인천정유로 새출범한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영설명회에서 최상훈 대표 이사는 1/4분기 주요 경영실적을 임직원에게 설명하고, 순조로운 출범에 대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국내 최고 옥탄가 100 이상 고출력 고급휘발유 '에쓰-가솔린 프리미엄' 출시



에쓰오일은 지난 4월 24일 옥탄가 100 이상의 고출력 고급휘발유 브랜드 '에쓰-가솔린 프리미엄 (S♥Gasoline Premium)'을 발표하고, 전국 30여 개 계열주유소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고급휘발유 '에쓰-가솔린 프리미엄'은 수입차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출시한 국내 최고 수준인 옥탄가 100 이상의 제품이다. 높은 출력 증강 효과로 탁월한 가속력과 엔진의 미세한 노

킹현상을 방지함으로써 편안하고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한다. 또 엔진 내부의 불순물을 감소시켜 엔진수명 연장과 연비향상은 물론 황·벤젠 등 공해유발 물질을 50% 이상 저감시킨 환경친화성을 강화했다.

유럽형 명품 엔진오일 'SSU 유로XT' 출시

에쓰오일은 최고급 엔진오일 'SSU 유로XT'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에쓰오일의 자랑인 3세대 윤활기유 '울트라 S'와 특수 첨가제를 사용한 100% 합성엔진오일로 2,000cc 이상의 고급 휘발유엔진 차량과 승용디젤(RV, SUV), LPG자동차에서 최고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장치에 필터막힘 등 악영향을 주는 황·인·회분(SAPS) 성분을 절반으로 줄여 연비개선과 대기 환경 보호효과를 크게 강화한 제품이다.

'100인의 카레이서' 캠페인 본격 시동

에쓰오일은 '100인의 카레이서' 광고 캠페인 홍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대규모 이벤트를 실시했다. 지난 4월 17일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100인의 카레이서' 캠페인을 알리

는 게릴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서울 주요지역에서 카퍼레이드와 계열주유소에서 퍼포먼스 공연을 펼쳤다.

중부내륙 영산주유소, 도로공사 '우수주유소' 표창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2005년 주유소 운영평가'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영산(마산방향)주유소가 우수주유소로 선정, 표창을 받았다. (주)이엠석유가 운영하는 영산주유소는 진해구 소장과 5명의 판매원들이 친절 서비스와 청결한 시설관리로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 우수주유소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현대오일뱅크, 방향족 60만톤·큐멘 30만톤 증설 MOU 체결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5월 9일 스페인의 정유 및 석유화학사인 CEPSA와 충남 서산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 대산 공장 인근에 60만톤 규모의 방향족 및 큐멘 30만톤 생산시설 신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47만톤 규모의 방향족 시설에 신설 예정인 방향족 60만톤, 큐멘 30만톤의 생산시설을 확보, 137만톤의 방향족 및 큐멘 생산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오일뱅크와 CEPSA는 양해각서에 따라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산 공장 인근에 BTX 등 방향족 생산설비를 추가로 증설하기 위한 동등 지분(50:50)의 조인트 벤처(Joint-venture)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임직원들 사랑의 헌혈행사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탕 크로리 기사인 김모(45세)씨 아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사무소에서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과 헌혈 캠페인을 펼치며 동료사랑에 동참했다. 이번에 모아진 헌혈증은 동료 돕기 외에도 헌혈 부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도 쓰여질 예정이다.

우와! 태극전사 응원여행에 자동차 행운까지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5월 31일까지 자사 계열 주유소와 충전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두 30명의 고객을 추천, 독일 여행권과, 오피러스, 그랜저 TG, 뉴산타페 등 총 10

대의 고급 자동차 및 총 1만 3천개의 4강 기원 응원 T셔츠 및 머플러도 경품으로 제공했다.



소외층 아이들 초청 뮤지컬 관람

현대오일뱅크 봉사동호회인 '한마음회' 등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저소득층, 결손가정 아이들과 함께 '브레멘 음악대'를 관람하고, 음료수와 다과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한석유협회 인사 ◆

□ 퇴직

기획관리팀 조사발간부

홍명경 대리

<6월 7일자>

한국석유공사 - 아제르바이잔 해상광구 참여 MOU 체결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을 수행한 한국석유공사 황두열 사장은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사인 소카르(SOCAR)사와 카스피 해상에 위치한 이남(INAM)탐사광구 지분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INAM 탐사광구는 아제르바이잔령 카스피해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매장량이 약 20억배럴 규모로 추정되는 대형 광구로서 BP가 25%의 지분(SOCAR 50%, BP 25%, Shell 25%)을 보유한 가운데 운영권자로 참여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앞으로 기술평가 등 정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유망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SOCAR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지분참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국컨소시엄 - 캄차카 육상 석유탐사 참여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 SK가스, 대성산업은 컨소시엄을 구성, 러시아 캄차카 반도 육상 Tigil 및 Icha 2개 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관계자는 "사업참여와 관련한 한국컨소시엄 주주간 계약 등을 체결했다"며 "현재 Tigil 및 Icha 광구의 운영권자는 캐나다 'CEP Petroleum International' 사이며, 한국컨소시엄은 Tigil 및 Icha 2개 광구에 각각 지분 50%를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SK주식회사 - 해외자원개발 인력확충 매진

SK주식회사는 석유개발 전문가 부족으로 현재 해외자원개발에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해 사내 석유개발 및 탐사, 생산 관련 전문인력을 기존 30명 선에서 배로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SK주식회사가 석유개발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한 것은 2010년까지 일일 생산량을 현재의 4배 이상인 10만배럴로 늘리고 원유 확보매장량도 7억배럴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SK주식회사는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석유공학이나 지질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확보해 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 차원에

서 석유공학, 지질학, 지구환경학 등 석유개발 관련 산학협력생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 동해영해에 제8광구 신설

우리나라 동해 영해에 8번째 광구가 새로 생긴다. 산업자원부는 동해 심해지역에 대한 유전탐사 및 탐사권 설정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저광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3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광구는 제8광구로 울릉도 남쪽 울릉분지의 8481㎢ 넓이의 심해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 가스를 생산중인 동해-1 가스전이 있는 대륙붕 제6-1광구의 북쪽에 인접한 곳으로 수심이 1000m에 달하는 심해지역이다.

우리나라 영해에는 서해지역의 제1광구를 시작으로 2, 3, 4, 5, 6-2, 6-1광구가 설정돼 있으며 제주도 남쪽으로는 제7광구인 한·일 공동개발구역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기에 석유공사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와 함께 이곳에서 공동 유전탐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탐사권 설정 및 출원이 가능하도록 신규광구를 설정기로 했다"고 밝혔다.